

一九六八年一月九日午後三時三十分 文財局長室에서 開催, 金庠基, 李弘植, 崔淳雨, 金元龍, 裴濂, 裴吉基, 秦弘燮, 諸委員 및 河局長, 文化財課長出席, 討議事項 다음과 같다.

一、國寶七六號 李忠武公亂中日記等 盜難事件 對策論議——搜查에 全力을 다할 것이며 回收後 다시 對策을 論議한다.

一、서울城廓(樓上洞 南山地域)補修(서울特別市豫算)——可 指導崔淳雨委員  
一、堤川長樂里模塚塔保護區劃策定——既히 買入한 地域으로 確定하며 南側의 道랑을 塔에 영향이 없도록 處理한 것.

一、宗廟內世宗紀念館建立——現情勢下에서 再檢討한 것.  
一、大田槐亭洞出土遺物處理

1、追加發見遺物을 一括하여 國博에 保管한다.  
2、報告書作成時에는 金元龍 秦弘燮 兩委員이 參與한다.

◎ 文化財委 第一分委 二次會議

一九六八年一月十一日午後二時 文財局長室에서 開催, 金庠基, 李弘植, 金允基, 崔淳雨, 裴濂, 裴吉基, 秦弘燮, 諸委員參席, 河局長, 文化財課長出席, 討議內容은 다음과 같다.

一、李忠武公亂中日記處理——德壽宮美術館에 保管하여 影印을 進行한다. 諸文書의 對校 及 影印事務指導 崔淳雨委員

一、桐華寺毘盧庵三層石塔內發見遺物處理——國博에 保管  
一、金山寺六角多層石塔補修——再檢討한다.

一、原城郡內瓦窯址遺蹟處理——崔淳雨, 秦弘燮, 兩委員 現地調査後 軍과 協助하여 保存策을 講究한다.

一、三千浦市發見 李朝浮屠保管——現地教育廳에서 保管한 것.  
一、中興山城內寺址半跏石像全南大移置——不可

一、幸州山城內李氏墓儀石施設——無許可로 施設한 床石을 撤去할 것, 陳情書는 審議한다.

◎ 文化財委 第一分委 三次會議

一九六八年一月二七日午前十一時 文財局長室에서 開催, 金庠基, 金允基,

趙明基, 崔淳雨, 金元龍, 秦弘燮, 諸委員 및 河局長, 文化財課長參席. 討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一、崔淳雨委員으로부터 李忠武公文書 對校中書簡帖 六面이 不足함을 報告한 고 影印事務는 進行하되 不足 書簡帖의 行方을 探索한 것이며 回收된 때 까지 書簡帖 影印發行을 保留하기로 한.

一、七宮管理移管——建物, 庭園을 毀損하지 않는다는 條件으로 靑瓦臺警護室에서 管理하는데 同意

◎ 文化財委 第一分委 四次會議

一九六八年二月三日午前十一時 文財局長室에서 開催, 金庠基, 李弘植, 金允基, 趙明基, 崔淳雨, 金元龍, 裴濂, 裴吉基, 秦弘燮諸委員 및 朱建設部長官河局長, 文化財課長 參席. 討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一、德壽宮담移置——서울市道路計劃에 따라 市廳에 面한 德壽宮담과 大漢門을 一六·四m안으로 移置하는 問題를 討議하였으나 未決되어 再論議하기로 한.

一、顯忠祠 一九六八年度 施設——可 豫算三千百萬元

◎ 牙山顯忠祠李忠武公亂中日記草盜難品되찾음

一九六七年十二月三十一日 새벽 牙山顯忠祠遺物館에서 잃어 버렸던 國寶第七六號 李忠武公 亂中日記 壬辰狀草等 親筆十卷이 一九六八年一月九日 朴政雄氏 등의 申告로 金山에서 되찾았다. 犯人은 主犯 柳根錫等 一黨 六名으로 특히 主犯 柳는 奉恩寺香爐, 通度寺佛像 等を 훔친 文化財 專門竊도범이라 한다.

그런데 全部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던 이것은 그中 書簡帖(十五장) 六장이 未收되었음을 영인본과 대조중 확인되어 二月 五日에야 나머지 六장을 되찾았다. 이것은 共犯 姜贊順 氏가 물레 빼돌려 자기집 마루장미에 숨겨두었던 것인데 그 夫人이 後患을 두려워하여 불태우려하였다 한다.

멕시코 통신

申 榮 勳

十二月十三日 金浦空港을 출발, 東京 一泊하고 十四日 밤 一〇시 三十分

Pan America 機便으로 「호노루루」에 도착하였습니다. 십세 一九도쯤이라는 기후는 겨울의 복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놀라게 하였읍니다. 반소매 등저고리 바람으로 「와이끼끼」해변을 거닐었읍니다. 해수욕객들이 온 거리를 수놓고 있었읍니다. 이날밤 비행기로 「로스엔젤스」를 향하여 떠났읍니다. 어제 비행기에서 하루밤을 잤는데도 오늘은 여전히 十四일입니다. 十四일을 이를 산 셈입니다. 「로스엔젤스」는 十五일 새벽 六시에 도착하였읍니다. 여기서 「멕시코」로 가는 Western 機에 換乘하여야 됩니다. 「로스엔젤스」는 등판하고 수속하는 잠깐의 시간밖에 머무를 수 없어서 市内 干청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Mexico 에 도착한 것은 十五일 오후 八시이었읍니다. 도중에 「샌타아고」에 한번 쉬었다 읍니다. 여기 기 후는 一四. C 정도랍니다. 코호트트고 출주북 차림이면 꼭 알맞을 기후였읍니다.

十六일 대사관을 방문하고 회대사와 여러 관원들을 상봉하였읍니다. 「멕시코」國立大學에 교환교수로 와있다는 禹教授란 분과도 初對面을 하였읍니다. 앞으로 일본의 협조를 얻게 된답니다. 이날로 Hotel Geneve에서 하숙집으로 자리를 옮겨 안정하였읍니다. 한국인 二世의 五八세인 할머니가 주인이었읍니다. 큰아들은 소아과의사로 미국에 가서 살고 작은아들은 교포 교민회장을 겸하고 있는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여러가지 편리한 일이 많을 그러한 거점을 얻게된 것입니다.

十七일은 일요일이었읍니다. 禹教授의 안내로 韓人教會에 갔읍니다. 서울서은 禹教授가 교포와 대사관 직원과 그 가족을 인도하고 있었읍니다. 이분들과 즐거운 회합을 갖섯읍니다. Chapulapac공원에 韓國Pavilion을 짓는다는 요일과 전의 회대사의 기자회견 보도로 우리들 일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읍니다.

Chapulapac 공원의 都市안에 있는 공원이라고는 세계에서 그 규모가 제일 크다고 이 나라 사람들은 자랑하고 있었읍니다.

十八일 공원의 현장을 답사하였읍니다. 우리 정자를 세울 자리입니다. 일견 석마음에 드는 좋은 위치였읍니다.

식물원안에 자리 잡고 있고 정자터 바로 옆에 巨木의 소나무가 있어서 더욱 좋았읍니다. 宣傳効果에도 알맞은 자리이고 하여서 모두 마음이 흡족하였읍니다.

十九일 「멕시코」市廳을 대사관 具參事官의 안내로 예방하였읍니다. 共公事業局長과 總務局長 그리고 식물원 관리 책임자를 만났읍니다. 모두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읍니다.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겠답니다.

釜山에서 부친 亭子의 資材가 Acapulco港에 도착하였다는 기별이 왔읍니다. 온 송입자와 협의하여 二十일 Acapulco에 가서 확인 인제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밤에는 하숙집 주인 들레아를 Miguel Lee Kim을 만났읍니다. 정자의 기초방법을 의논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멕시코」는 마치 白頭山 天池가 말라서 생긴 것 같은 都市이어서 地盤이 몹시 약합니다. 수정과도 같은 성질을 갖어서 건물을 지어 놓으면 한쪽으로 기울었다간 얼마후 바로 서곤 합니다. 거리에서 오래된 건물들이 기울은 것이 자주 눈에 띄었읍니다. 몇년전에 태풍에 이 도시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 「라틴·타워」(四十五층)가 약 一五도가량 기울었읍니다. 유리명장 깨어지고는 곧 원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기울거나 沈下하여도 조금도 걱정이 없답니다. 한쪽이 내려 앉으면 도시 어느쪽에서고 솟아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얼마후 그 부분이 갈아앉으면 원상으로 복구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건물 기초법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들은 건물의 한하여는 미국보다 三十年 앞서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실제로 미국인 건축학도들이 이 나라를 순방하고 있는 三十一명의 一行과 국립대학 구내에서 만나기도 하였읍니다.

二十六일의 Miguel씨의 검토 결과를 듣기로 하고 헤어졌읍니다. 二十일 오후 짐을 확인하러 Acapulco港으로 떠났읍니다. 세계美港의 하나라고 선전이 대단한 곳입니다. 거기 일기는 지금 二〇. C 정도랍니다. 거리는 三五〇km Ford 六七年 年度型 세단차로 五시간 걸리는 장거리 여행입니다. (Acapulco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第九卷 第三號 通卷九十二號 —  
天原 大坪里寺址의 石塔材

李 殷 昌

一、序 言

一九六七年 九月下旬頃에 安市市에서 搬出途中에 있는 石塔片 四個를 抑留하고 그 狀況이 報告된 바 있다. 그리하여 忠淸南道教育委員會文化係에서 現場調査 依頼가 있어 同月 三十日에 遺物과 遺物 出處地인